

**농림수산식품부
소식**



◎주요 농축수산물 29개 「품 목별 연구회」 만든다

품목별 생산·유통·가공·소비·수출입·정책 종합연구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농축수산물 29개 품목의 생산·유통구조개선 대책 등을 상시 연구하는 모임인 「품목별 연구회」를 2009년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품목별 연구회」는 주요 농축수산물 29개 품목의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비농업계(산업, 문화계 등)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품목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 가공, 소비, 수출입, 정책분야 등 품목산업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9개 품목 : 생산액·수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식량) 쌀, (채소·특작9) 고추·버섯·배추·딸기·토마토·파프리카·인삼·마늘·양파, (과수6) 사과·배·감귤·포도·단감·백합, (축산7) 한우·돼지·닭·계란·우유·양봉·오리, (수산6) 넙치·전복·김·고등어·멸치·오징어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에 있는 29개 품목의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과 해결과제에 대한 정체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현재, 농축수산분야의 연구모임은 학회 등을 중심으로 학회, 연구회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특정주제(생산분야, 가공분야 등)에 한정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품목별 생산에서 유통·가공·소비·수출입·정책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기존 연구모임의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 품목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실질적 연구를 실현하

기 위해 이번에 품목별 연구회를 운영키로 하였으며, 초기단계는 농식품부의 품목 담당부서에서 연구회 운영을 주관하고, 앞으로 품목별 대표조직이 설립되면 동 대표조직에서 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품목별 연구회」는 2009년 6월 하순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립수의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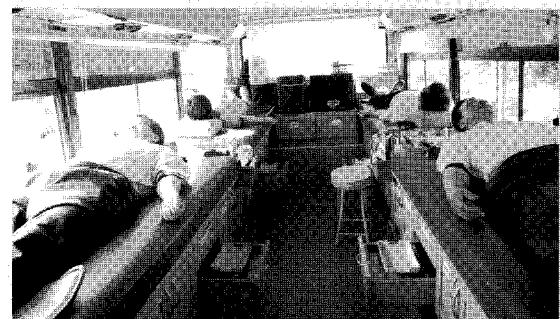
검역원

소식



◎사랑실천 현혈행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 행사의 일환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실



천 현혈행사를 펼쳤다.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들이 앞장서서 사랑실천 운동에 동참했으며 이번 현혈행사를 통해 기증받은 현혈증서는 지역 내 환우들에게 일괄 기증될 예정이다.

검역원은 1사1촌 농촌돕기, 소외계층 성금모금액 지원을 꾸준히 실천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NEWS



Government & Agency | 정부 및 기관 소식

농촌진흥청
소식



◎농협중앙회와 연구·경제 교류협약 체결

축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 강화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남성우 대표이사(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
학원 라승용 원장(우)

◀ 협약체결식 이후 기념
촬영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과 농협중앙회(축산경제 대표이사 남성우)는 축산연구·경제사업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6월 2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국가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가축개량,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통, 지역 축협 축산사업단 기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와 경제사업에 협력을 강화하고,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등 정부시책사업을 공동 추진기로 했다. 최근 한우 명품화와 조사료 생산 등 축산농가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기술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축산과학원과의 기술교류 협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기관위상 차원에서 개별 농·축협과의 협약체결보다는 농협중앙회와의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현안문제는 과제별로 연구 협약을 맺어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가축개량 및 품종보급,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축협을 연계한 축산 신

기술 보급, 조사료 확보를 위한 국내육성 신품 사료작물을 채종포 운영 등 양축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연구와 경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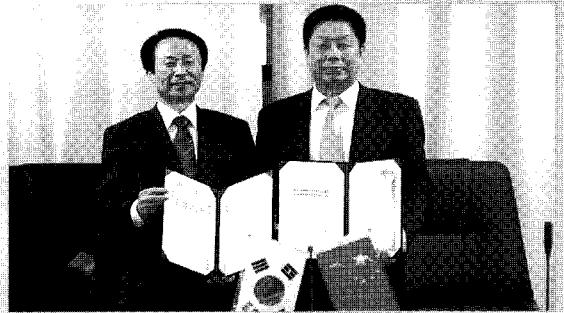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농·축협 공통의 현장애로기술 수요를 파악하는 등 현장연구를 강화하여 우리 농업·농촌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
소식



◎농경연, 중국 농업경제발 전연구중심과 MOU체결

• 오세익 원장은 6월 18일 중국으
로 출국하여 중국농업과학원 농업



경제발전연구중심과 연구협력협정(MOU)을 체결했
다. 양 기관은 MOU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상호 관심 분야를 선정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세익 원장은 6월 19일 중국농업정책연구의 중심부
서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농촌경제연구부 한준(韓俊)
부장을 만나 상호 연구 협력을 강화 등을 논의했다. 또
한 중국과학원 농업정책연구소를 방문해 앞으로 공동
연구 추진과 주기적인 학술세미나를 통해 공동 관심사
를 논의하고 MOU도 추진키로 했다. 오 원장은 주중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정승 대사에게 한중FTA 체
결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한중 농업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북경 주재 농업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농업분야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 '안성목장 승마센터' 개장

최근 레저스포츠의 일환으로 생활승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운데 농협 안성목장에 승마센



터가 문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8일 안성시 공도읍 안성목장에서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남성우 농협축산경제대표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마센터 개장식을 했다.

남 대표는 인사말에서 “낙농시범목장으로 시작된 안성목장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농축산 테마공원화를 추진하게 됐고 그 첫 작품으로 오늘 승마센터를 개장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승마센터는 2만550㎡의 부지에 실내외 마장을 갖추고 승마 이론교육과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요금은 체험승마인 경우 1만 원, 일회원은 3~5만 원, 월회원은 40~70만 원으로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쿠폰 13장을 50만 원에 구입(2개월내 사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레슨은 월 20만 원의 추가요금을 내면된다. 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월요일은 휴장하며 이달 한 달간 레슨비는 무료다.

농협은 승마센터를 통해 수도권 인근에서 생활승마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마필산업을 육성해 축산농가의 수익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희망 양축가 교육과 승용마 생산기술을 지원하고 오는 2011년 3월에는 안성목장에 농축산테마파크인 ‘목우촌팜랜드’를 개장할 예정이다.

◎ 2012년 신용·경제사업 분리

농협중앙회는 오는 2012년 신용 및 경제사업을 분리,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실무검토를 끝내고 이를 위해 법인수준에 준하는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8~19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이사회 워크숍에서 실무적 검토차원이라는 의견을 전제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사회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체제를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독립된 법인에 준하는 사업부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독립사업부제는 현 체제를 그대로 운영하되 각 사업부문별로 자본금을 배분하는 한편 직원별로 직급을 분류해 각 사업부문 사이에 완벽한 차단벽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면서도 출된 보완점이나 과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오는 2012년 지주회사로의 접근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사 조합장들은 이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외부압력에 부딪칠 것’ 이란 부정적 의견과 ‘자선책’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도상훈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업분리를 위한 준비기간이 2년여에 불과한 것은 너무 조급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